

# 팩트·공정·품위...한걸음 더 들어가 시청자를 사로잡다

## 손석희 현상

강준만 지음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의 멘트는 목표물을 향해 공중에서 일직선으로 내리꽂히는 때를 연상시킨다. 그만큼 간략하고 정확하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은 자신의 저서에서 언론인 손석희를 이렇게 평가했다. “자신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아우라(Aura)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는 설명이다. 만화가 김범준도 그를 “사회를 비추는 따뜻한 등대지기”라고 묘사했다.

주관적 평가 외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위상은 돋보인다. 그는 2007년 이래 10년 연속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에 뽑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신뢰도(36.8%)를 기록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를 이슈화한 것도 그가 지휘하는 jtbc였다.

저녁 7시50분이면 기다렸다는 듯 그가 진행하는 뉴스채널에 눈과 귀를 고정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지금처럼 한 언론인의 입에 주목하던 때가 있었을까? 제대로 된 언론매체의 부재 속에서 ‘손석희 현상’이라 부를 만하다.

언론학자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최근 ‘손석희 저널리즘’을 분석한 책을 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손석희의 저널리즘 활동이 이루어진 배경, 즉 한국 언론사라고 하는



jtbc는 지난해 10월 24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명백한 물증인 ‘최순실 태블릿 PC’를 특종보도했다. 손석희가 이끄는 jtbc는 팩트(사실)와 공정, 균형, 품위 등 4대 보도방향을 기본 전제로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앵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앵커.

콘텐츠를 제시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저자는 ‘미디어 오늘’과 다양한 매체에 실린 손석희 관련 대담과 기사를 정리해 1984년 MBC(문화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 jtbc 사장과 앵커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인 손석희의 언론철학과 발자취를 재구성했다.

손석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100분 토론’을 진행하며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맘껏 발휘했다. 그의 장기는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드는 논쟁적인 ‘송곳 인터뷰’였다. 그는 2013년 5월, 프리랜서와 교수직을 내려놓고 jtbc 보도본부 총괄하는 사장직을 맡았다. 당초 종편에 대한 우려와 달리 그는 특심있

게 ‘혁신하고 변화시켰다’. 그의 보도 방향 기본 전제는 ‘팩트(사실), ‘공정’, ‘균형’, ‘품위’ 4가지였다. 그리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민사회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14년 만에 다시 메인 뉴스 앵커로 돌아갔다. 백화점식 나열보도를 벗어나 하나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뮤직식 기획보도’였다. ‘세월호 침몰’ 참사 때는 직접 현장에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현재 시청자들이 그의 뉴스를 지켜보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양파껍질을 벗기듯 국정농단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던 지난해 12월, jt-

bc ‘뉴스 룸’의 시청률은 10.42%였다. 타 방송뉴스가 2~5.4%인 것과 대비된다. “단물이 다 빠지면 언젠가 쫓겨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정청래 전 의원의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꿀 정도로 jtbc는 ‘믿고 보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손석희표 저널리즘’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뉴스대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는 한 저널리스트의 언론철학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그의 방송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 언론 종사자로서 과연 ‘언론의 역할을 다했는지?’ 자성하게 만든다. <인물과사상사·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A급 전범의 증언=도쿄전범재판 속 기록 한 글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심판한 도쿄전범재판 피고인 25명의 재판 신문 기록이 차례로 출간된다. ‘도조 히데키 편’은 그 첫 번째 책이다. 도조 히데키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총리대신을 비롯해 여덟 개의 대신직을 겸하며 전쟁 시기 일본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일본을 전쟁으로 이끈 그의 전쟁관은 눈여겨볼 만 하다.

<언어의바다·2만2000원>

▲아침 3분 데카르트를 읽다=원전이 주는 부담감을 덜도록 가능한 한 쉽게, 비즈니스와 생활에 밀착하여 풀어냈다. 1부에서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해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고 직관을 키우게 한다. 2부에서는 ‘성찰’의 핵심 내용을 통해 강한 의지를 다진다. 3부에서는 ‘철학 원리’를 통해 가장 평범한 것에서부터 원리를 찾고 예리하게 사고하도록 이끈다. 4부에서는 ‘정념론’을 통해 세계를 포용하는 법을 말한다.

<나무생각·1만2800원>

▲조선의 생태환경사=생태환경사를 통해 한국사회경제사를 재정의하고 이를 역사교육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김동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책. 저자는 한반도의 생태환경과 한국인의 삶이 크게 바뀐 15~19세기 조선 시대에 주목한다. 조선시대 한국인의 여러 활동으로 인해 이전까지의 생태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겪었고 당대인들 또한 그렇게 변화된 생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푸른역사·2만원>



▲빛의 호위=작가 조해진의 세번째 소설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한 작품을 묶은 이번 소설집에는 이효석문학상 수상작 ‘산책자의 행복’을 비롯한 9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왔고 세월호시대를 살아가며 더욱 견결해진 주제인 ‘역사적 폭력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하는 지점을 한층 심세하고 차분하게 파고든 점이 돋보인다. “생존자는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진심을 담아 썼다. <창비·1만2000원>

▲마케팅 지배사회=한국은 수명, 건강, 소득과 같은 객관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해왔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감과 전체적인 행복 수준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소비문화와 행복을 위한 성찰을 위해 저자는 소비와 부의 추구가 개인의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들과 사회 전반의 소득 수준, 형평성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약순환의 문제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들녘·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팬권은 너무해=칼데라 아너 상 수상 작가 레인 스미스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조리 존의 합작품. 아마존 올해의 책, 내셔널인디베스트셀러, 주니어 라이브리 선정 도서 등 다양한 선정 도서에 이름을 올렸다. 똑같은 친구들, 눈으로 가득한 땅까지 모든게 못마땅한 팬권 앞에 바다코끼리가 나타나 여러가지 조언을 해준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누구 바지야? 외=스웨덴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누가’ 그래픽 시리즈. 작가 스티나 비르센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아이들의 감정의 변화를 세밀하고 유쾌하게 그려 내 아이와 부모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총 16권의 시리즈 가운데 첫 세트(전5권)를 먼저 선보인다. <문학과지성사·각 권 9000원>

▲처음 세계사 : 현대 세계의 냉전과 변화=처음 세계사 시리즈가 완간됐다. 10권 ‘현대 세계의 냉전과 변화’에는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섰던 냉전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련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붕괴, 유럽 연합의 등장, 한국과 일본 등 냉전 이후 세계 변화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RHK·1만원>

▲사과가 필요해=박성우 시인의 두 번째 청소년시집. ‘난 빨강’을 통해 청소년 분야를 개척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한층 무르익은 시 세계를 보여 준다. 노동하는 청소년, 가난과 외로움, 여자아이의 성(性) 등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시들이 다채롭게 실려 있어 새로운 감성으로 마음을 물들인다. <창비·8500원>

# 발자크·고흐 등...26명의 명사들이 사랑한 음식 이야기

## 식탐일기

정세진 지음

‘고리오 영감’, ‘꿀짜기의 백합’ 등을 쓴 프랑스 작가 발자크는 생계를 위해 ‘전투적으로’ 글을 썼다. 손대는 사업마다 졸졸이 실패해 막대한 빚을 진 데다 도박광이었고, 사치스런 씀씀이를 이기지 못했던 그는 돈이 되는 글이라면 무엇이든지 썼다. 탈고를 한 후에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폭식을 했다. 앓은 자



리에서 1000여 개가 넘는 글을 먹었다는 일화도 전하고, 집필을 할 때면 5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곤 했다. 기자 출신 정세진씨가 쓴 ‘식탐일기’는 문화,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26명 명사들이 사랑한 음식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과 당시의 역사 등을 살펴본 흥미로운 책이다. 물론 각각의 음식에 관한 역사도 만날 수 있다.

‘녹색의 요정’으로 불린 압생트는 예술가들이 사랑한 술이었다. 알콜 도수 45~74%에 이르는 압생트를 사랑했던 시인 랭보는 압생트의 취기를 ‘가장 우아하고 하늘 하늘한 옷’이라고 표현했고 역시 애호가였던 에드거 드가와 빈센트 반 고흐는 ‘압생트 한 잔’(1976)과 ‘압생트와 카페 테이발’(1887)을 그렸다.

무슬림들이 마시던 커피가 유럽에 전래된 건 17세기였다. 당시 커피 애호가였던 작곡가 바흐는 ‘아! 커피는 얼마나 달콤한가/천번의 키스보다 사랑스럽고’로 이어지는 10개의 아리아로 구성된 작품 ‘커피 칸타타’를 남겼다.

책에서는 또 무라카미 하루키와 펄 수 없는 맥주에 대한 이야기와 작곡가뿐 아니라 미식가로 유명했던 로시니의 음식 사랑, 명작을 탄생시킨 제인 오스틴의 흥차 한 잔, 1950년대 독일로 유학을 떠난 전래인이 맛본 유럽 음식 이야기와 당시의 풍경 등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다. <파피에·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 CBS 성경암송 캠페인

## 암송성경 1189

<암송성경1189>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정신을 살려 1,189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교회별로 1장씩 암송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만드는 디지털영상성경입니다.

★참가자격 교회 또는 기독교 기관(인원 제한 없음)

★마감 선착순

★암송범위 1팀 1장

★암송방법 지정 형식 없음(일반, 노래, 율동 등 표현방법 자유)

★암송기한 암송범위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참가비 없음

★암송촬영방법 ①교회 또는 기관에서 자체 촬영하여 CBS 전용서버로 업로드 단, 자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CBS 제작팀과 협의  
②촬영기기 : 지정 없음(핸드폰, 캠코더 등 자유)

특전

01 디지털 암송성경은 독일 및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봉헌

02 박물관 및 기념관 특별전시(독일, 한국)

03 참가자는 'CBS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

04 기네스북 등재(도전)

유년시절 암송한 성경구절은 일생을 선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CBS는 전 세계 다음세대와 함께 성경암송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CBS와 함께하는 <암송성경1189> 제작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CBS 홈페이지 [www.cbs.co.kr](http://www.cbs.co.kr)

문의전화 02)2650-7936, 7937